

##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도울 수 있기를



김명석 KIST 천연물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2020년 아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박사과정을 마치고 KIST 천연물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석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천연물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이력은 언뜻 평탄해 보인다. 연세대 생명공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후 귀국해 KIST 천연물연구소에 입사, 올해 봄에 태어난 아들이 있는 단란한 가정의 가장이다.

하지만 그의 대학원 생활과 유학생 생활은 쉽지 않았다. 가족의 발병과 경제적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한 실험실 임시 폐쇄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줄지어 일어나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결국 건강 문제까지 겹쳐 조기 귀국하고 한국에서 논문을 마무리해야 했다.

그러나 힘든 순간마다 그를 지지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특히 동료를 통해 알게 된 아산재단의 장학사업으

로 유학생이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김명석 선임연구원은 “아산재단의 장학금 지원이 힘든 역경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며 기꺼이 자신의 경험을 아산장학생 후배들에게 나누고 있다.

### 후학들의 성장에

###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지난 봄 서울에서 열린 아산장학생 간담회는 의생명과학 분야 대학원 장학생간 교류와 연구소·기업 등에서 연구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장학생 동문과의 대담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명석 선임연구원은 장학생 동문으로 참여해 자신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후배 장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



김명석 선임연구원은 유전체 분석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건강한 먹거리를 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맞춤형 영양을 연구하고 있다.



지난 4월 아산장학생 간담회에서 의생명과학분야 대학원 멘토로 참여한 김명석 선임연구원(가운데).

해주는 멘토 역할을 했다. 그동안 공부하고 경험한 것이 단지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학들의 성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제 경험과 지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지지해주고 조언해주시는 분들을 만나서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삶에서 ‘귀인’을 만나는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누군가의 인생에 귀인이 되어 그의 성장과 세계관을 넓히는데 도움이 된다면 정말 보람 있는 일이잖아요. 사실 장학금 지원을 받은 걸로만 끝났으면 아쉬웠을 텐데, 제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김명석 선임연구원은 “아산장학생들 간에 이런 선순환이 계속 활발하게 일어나면 좋겠다”고 말한다.

### 대중에게 긍정적 영향 미치는 실질적인 연구를 목표로

김명석 선임연구원의 주 연구는 영양유전체학 분야로 쉽게 말해 먹거리와 유전자다. 사람마다 다른 고유한 유전체를 분석해 어떤 질환에 취약한지를 분석해서 이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식습관을 바꾸고 보다 합리적이고 건강한 먹거리를 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맞춤형 영양이 그의 연구 주제다. 히포크라테스가 2천 년 전 ‘음식은 약이다(Let food be thy medicine)’라고 말한 것처럼, 각 사람의 유전적 특성에 맞춰 식습관을 개선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저는 연구를 할 때 ‘재미, 의미, 유익’ 세 가지를 생각해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연구, 대중의 의사결정이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산업화를 염두에 두고 경영학을 복수전공했고요, KIST 천연물연구소에 입사한 것도 식물이나 미생물 등 천연물 속에서 소재를 찾아 식약처 등록과 산업화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암 환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전신 영양 부족에 따른 근감소증이 어떤 유전적인 소인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연구하고 노령 환자의 집단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근육량을 조절할 수 있는 생물학적 지표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 조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지식을 후학들에게 전하고 있다. 김명석 선임연구원은 “단순히 의미 있는 연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연구를 계속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

글 편집부